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분노품(忿怒品) ③

捨悲難慢 사에이만
 避諸愛會 피제애회
 不著名色 불착명색
 無爲滅苦 무위멸고

성냄 버리고 만심 여의라
 애욕의 못 모임에 발길 돌리고
 이름과 형상에 집착하지말라
 힘이 없어야 괴로움 면한다

起而解怒 기이해노
 釋生自禁 음생자금
 捨不明健 사불명건
 斯皆得安 사개득안

분노가 일거든 풀어 해치고
 음욕이 생기거든 잡아가둬서
 무명의 역센 힘 끊어버리면
 그것이 언제나 안락 얻는 길

斷斷愍安 진단와안
 志滅疑憂 에멸우우
 怒爲毒本 노위독본
 惡意梵志 늑의범지
 言善得樂 언선득락
 斷爲無患 단위무환

夫忍爲上 부인위상
 宜常忍羸 의상인리

힘이 있으면 거칠기가 쉽고
 힘이 없으면 부드럽게 된다
 무릇 인욕이 가장 으뜸이니
 언제나 괴로움을 잘 참아야 한다

學樂經之 저중경지
 有力者忍 유력자인
 夫忍爲上 부인위상
 宜常忍羸 의상인리

은 무리들이 업신여기더라도
 힘 있는 자는 참는다
 무릇 인욕이 가장 으뜸이니
 언제나 괴로움을 잘 참아야한다

自我與彼 자아여피
 大畏有三 대의유삼
 如知彼作 여지피작
 宜滅己中 의멸기중

내가 남과 더불어 지낼때
 크게 두려워 함께 세가지 있다
 만일 그가 짓는 바를 알거든
 마땅히 내 마음에서부터 그 생각을
 없애라

“분노 풀어 해치고 음욕 잡아가둬 무명의 역센힘 끊으면 항상 안락”

성냄을 자르면 편안하다
 분연히 음욕의 근심을 물리쳐라
 분노는 모든 독의 근본이 된다
 부드러운 뜻은 깨끗한 마음이다
 말이 바르면 기쁨을 받고
 힘이 없는 행이면 근심이 없다

俱兩行義 구양행의
 我爲彼教 아위피교
 如知彼作 여지피작
 宜滅己中 의멸기중

서로가 행하는 뜻을 가지고
 내가 상대를 가르치려 할때에는
 만일 그가 짓는 바를 알거든
 마땅히 내 생각부터 없애라

善智勝惡 선지승우
 惡言惡說 추언악설
 欲常勝劣 욕상승자
 於言宜噤 언의의묵

바른 지혜는 어리석음을 이기나
 상대가 거친 말 악다구니로써
 늘 이기려고만 하거든
 그런 말에는 마땅히 침묵해야 한다

夫爲惡者 부위악자
 怒有怒報 노유노보
 怒不報怒 노불보노
 勝彼勝劣 승피투부

무릇 나쁜 사람은
 노여움을 노여움으로 갚으려한다
 노여움을 노여움으로 갚지 않으면
 그와 더불어 지는 것보다 낫다 龍眼

同志相近 동지사근
 詐作作惡 사위작악
 後別除患 후별여애
 火自燒惱 화자소뇌

뜻이 같아서 서로 가까이 하여
 속임수로 악을 지으면
 갈라 선뉘 원한이 남아
 그 불로 스스로를 불사른다

不知慳慳 부지참과
 無成有怒 무계유노
 爲怒所牽 위노소견
 不厭有務 부역유무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지못하고
 계행은 없고 노여움 있으면
 그 노여움에 끌려 다니면서도
 그 일을 싫어하지 않게 된다

有力近兵 유력근병
 無力近患 무력근환

큰스님 수행한담

“말은 일 열중하다보면

관응스님 (직지사 조실)

법이란 진리입니다. 진리를 듣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과거 부처님 계셔도 전생에 상삼박으로 어렵게 공부를 하셨습니다. 어느 전생에서인가 부처님은 보통사람으로서 실산공부를 하셨습니다. 실산은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우는 에베레스트봉이 있는 히말라야를 말합니다. '히말'이란 뜻은 눈을 의미하고 '라야'는 감추다라는 뜻으로 '눈에 파묻힌 산'이라 합니다. 인도는 열대지방이지만 산이 높아 만년설에 뒤덮여 있습니다. 또 부처님은 전생에 한 귀절의 말씀을 위해 나찰에게 목숨을 바쳤는데 과연 우리들은 무엇을 바칠 수 있을 것입니까.

중국의 해가대는 달마대사로부터 법을 가르쳐 받으려 했으나 안가르쳐 주니 팔 하나를 잘랐습니다. 이와 같이 구도열로서 정신을 무장하는 것이 오늘날의 한국불교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진실합니다. 선재동자도 53명의 선지식을 찾아 1백20생이나 걸었습니다. 그 거리가 대단한 것이며 그의 구도정신을 새롭게 받아지니야 합니다.

30여년전에 조계사 주지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하도 법문을 해달라고 해서 맡은 게 그럭저럭 10여년간이나 하게됐지요. 그런데 그 당시는 비구 대처 분규로 분란이 끊이지 않던 때라 염증을 느껴 조용히 머물수 있는 곳을 물색하다 도봉산 천축사 무문관(無門關)에 들어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무문관에서 환갑을 맞이했으니 늦은 나이에 인연이 닿은셈이지요.

무문관은 음식물을 넣어 주는 구멍만 남겨 놓은채 사방을 다 막아놓아 외부세계와는 완전히 차단된 곳입니다. 이렇게 폐관하는 것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지요. 부처님의 6년간 실산고행을 본받아 한번 들어가면 4~6년간 일체 문밖에 나올 수 없고 면벽참선만하게 됩니다.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벽을 깨치고 나오는 것은 곧 자신의 거지된 곁집을 완전히 부수어 내외가 명절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무문관에서는 모든 것을 단순화하여 오롯이 일념으로 화두의심만 행하는 것이니 최소한의 생활로 선정삼매를 추구하게 됩니다. 사방이 막힌 무명속에서 생사여일의 활로를 찾는 과정이지요. 엄밀히 말하면 중생들이 살아가는 시방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무문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구함에 있어 반드시 스님만이 가르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나보다 한치라도 나은 사람들에게는 빠짐없이 배워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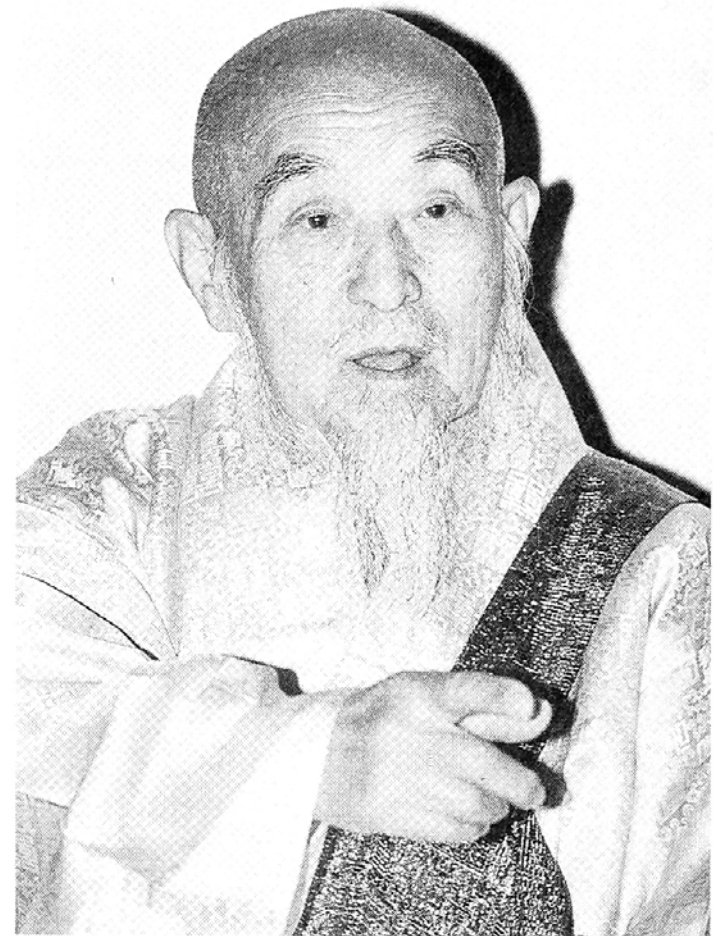
과거 정화 이전에는 대처승과 비구의 구분없이 훌륭한 스님들은 모두 모시고

법문을 들곤 했는데, 이제는 옛 이야기일 뿐입니다. 불법을 배우려는 정신이 퇴색해가고 있습니다. 책임감 있는 교육제도가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법당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신도들은 삼배 올리기 전에 초를 켜고 향을 피우느라 저마다 법석입니다. 그러나 본래 향과 초는 스님이 피우는 것으로 신도들은 정성껏 준비해 불전에 놓아두면 큰 공양의 의미를 지닙니다. 먼저 와 기도올리는 신도가 켜 놓은 촛불을 끄고서 내리고 본인이 손수 새 양초를 꺼내어 불을 밝히어야 직성이 풀리는 모양입니다.

부처님 좌우로 각각 하나씩의 촛불이면 족합니다. 지극한 정성, 부처님 앞에는 오직 이것만이 최고인 까닭입니다.

이처럼 스님네의 일과 신도들의 일에 구분이 있듯이 어른과 어린이는 각기 자신의 위치가 있어 설 자리에 서고 앉을 자리에 제대로 앉아야 질서가 이루어 집



- 1910년 경복 상주 소
- 1929년 광주 남장사서 혜봉스님 계사로 사미계 수지
- 1936년 선학원 일봉스님계사로 비구계 수지
- 1938년 동국대 졸업
- 1940년 일본 용국대 졸업
- 1959년 조계사 주지
- 1961년 동국학원 이사
- 1972년 인양교원 이사장
- 現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종교 잘못알고 믿으면 불행 인생의 근본 알고 사는일 소중 생사여일 활로 개척 해야 행복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릇되게 알게됨으로써 발생하는 그릇된 신앙의 모습은 종교마저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잘못알고 믿는 것은 불행일 뿐입니다. 일평생 삶을 사는 동안 인생의 근본을 알고 사는 것처럼 소중한 일은 다시 없습니다. 또 일상의 생활자체가 곧 참선이 되어야 하며 그 속에서 생사여일의 활로를 개척해야 합니다. 평상심(平常心)이 곧 도(道)이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함께 오래 살면 모습이 닮는다고 합니다. 영불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꾸 익힘으로써 한가지만을 생각하

게 되면 완성이 됩니다. 글 쓰고 조각하는 이들이 그 일에 열중하다가 보면 묘력이 나옵니다. 묘력이 나면 그 지혜가 둥글어집니다. 이와 함께 삶이 동화됩니다.

목욕탕의 물이 뜨거운데 찬물을 조금 넣어놓으면, 새로이 들어온 찬물은 뜨거운 물속에 동화되어 뜨겁게 변화합니다. 우리들이 밥과 국과 반찬이 위에서 동화됨으로써 소화가 되는 것과 한가지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 모두가 자기에게로 와서 동화되어야만 합니다.

한가지 일에 스스로가 몰두하다가 보면 우주 법칙의 기운이 체화됩니다. 무심

속에서 '나'라고 하는 강한 아상이 사라져 우주법칙이 스며들어 자유자재를 이룰수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는 이들은 토끼 한마리를 그려도 익숙해진 손놀림을 통해 저절로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듯 이 세상에는 마음먹어서 안되는 일이 없습니다. 해보지도 아니한 채 단 한번의 시도로서 안 되는 일로 판단함으로써 무명에 휘감기고 미는 것입니다.

나는 미국에서 약 1년반여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보고 느낀점이 많습니다. 개를 좋아하는 미국인들은 잘 때 도 개를 데리고 자고, 고기를 먹이는 등 정성이 지극한데 반해 자기 부모는 양로원에 혹은 따로 살면서 1년에 한번 가보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부모가 죽어갈 때 병원에서 자식에게 연락을 했더니 사다가 바빠서 못가겠으니 장례를 치르고 난 비몽청구서나 보내달라는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잘 사는 나라라는 곳의 이야기

부처님 말씀을 전하세요, 가장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책방 여시아문에서 고객 여러분의 선물을 대신 보내 드립니다.
(97.12.1~98.1.31)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고객 여러분께서 선물하고 싶은 불서와 보내 드리고 싶은 분의 주소를 알려 주시면 전국 어느 곳이라도 직접 우송해 드립니다.
문의 전화:(02)737-0695

등기 우편료(평균 3000원) 중 절반은 여시아문에서 부담해 드리므로 고객께서는 1500원의 우편료만 더 내시면 됩니다



사은 판매 도서

- 한산시 김달진 역주 / 세계사 / 10,000 → 6,000원
- 동양의 지혜와 선
- 심재용 / 세계사 / 12,000 → 6,000원
- 한·중 불교 문화 교류사
- 황유복 외 / 까치 / 15,000 → 8,000원
- 불교학개론 강의실
- 1, 2 장희욱 / 불교시대사 / 4,500 → 2,700원
- 육야경, 선생경 외
- 경전연구모임회 / 불교시대사 / 2,500 → 1,500원
- 본원행원품, 관세음보문품 외
- 경전연구모임회 / 불교시대사 / 2,500 → 1,500원
- 부모은중경 외
- 경전연구모임회 / 불교시대사 / 2,500 → 1,500원
- 행복한 마음 김정섭 / 김영사 / 5,900 → 4,000원
- 배꼽 밑의 주인공을 찾아라
- 박희선 / 심령과학출판사 / 7,000 → 4,000원
- 선문선담 조오현 / 창송 / 5,000 → 3,000원
- 초서자전 권김부 / 까치 / 30,000 → 15,000원

선물용 도서

- 한국사찰음식 김연식 / 우리출판사 / 12,000원
- 100문 100답 선불교 강좌편 상·하
- 인지 / 대원경사 / 각 8,000원
- 기도 일타 / 효림 / 5,000원
-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 일타 / 효림 / 3,500원
-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 현대불교신문사 / 여시아문 / 7,000원
- 금강경 대강좌 이계철 / 여시아문 / 8,000원
- 삶은 고가 아니다 혜원 / 여시아문 / 7,000원
-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김원준 / 효림 / 7,000원
- 인간을 생각하는 다섯 가지 주제
- 경송석 / 대원경사 / 8,500원
- 삼국유사 1, 2 일연 / 숲 / 각 8,500원
- 법구경 김달진 / 휘암사 / 8,000원
- 드솔전에서 만나다 장순용 / 세계사 / 6,000원
- 깨달음의 길 거희 / 담마간다 / 6,000원
- 석가와 크는 아이 어린이 철학연구소 / 산하 / 5,000원

- 붓다 - 깨지지 않는 등불
- 장부아슬리에 / 시공사 / 6,000원
- 돼지 저금통 속의 부처님 권대용 / 국민서관 / 5,000원
- 오래된 미래 헬레나 노르베리-호저 / 녹색평론사 / 5,000원
- 내 아들 딸들아 세상은 너의 것이다
- 윤극 이이 권, 안경환 역음 / 문산 / 5,500원
-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 한국역사연구회 지음 / 청년사 / 6,500원
- 돌부처 이근후 / 여시아문 / 6,500원
- 작은 것이 아름답다
- EF 슈마허 지음, 김진욱 옮김 / 범우사 / 6,000원
- 세계의 공동체 마을들
- 올리버 포피노 - 크리스 포피노 지음 / 정신세계사 / 6,000원
- 문화의 수수께끼
- 마빈 해리스 지음, 이종인 옮김 / 시공사 / 7,000원
- 진흙 속에 피는 연꽃 이슬기 지음 / 불광 / 3,500원
- ※달력: 산악 8,000원 / 한국의 사계 7,000원
- ※영상 노트:
- 와불 일어나시다 5,000원
- 남다라 크는 그리움 5,000원

책방 여시아문 통산판매 안내

책방 여시아문 주소: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
전화:(02)737-0695, 732-1521 / 팩스:(02)737-0696

성철 스님 법어집

- 백일 법문 상·하 상 6,500원 하 5,500원
- 선문정로 평석 6,000원
- 돈오입도 요문론 강설 5,000원
- 신심명 증도가 강설 6,000원
- 영원한 자유 6,000원
- 자기를 바로 보시다 6,000원
- 돈황본 육조단경 6,000원
- 선문정로 4,000원
- 본지풍광 7,000원
- 한국불교의 법맥 5,500원

·성철 스님 법어집 1집(11권 W63,500)을 구입하시는 분들께는 비디오(「스님, 성철 큰스님」W100,000)를 선물로 드립니다.